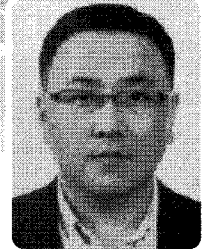


【특집II: 결산 2010,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결산】

낙농 사료산업 결산



남기돈
CJ제일제당(주) 축우PM
부장

2010년 낙농산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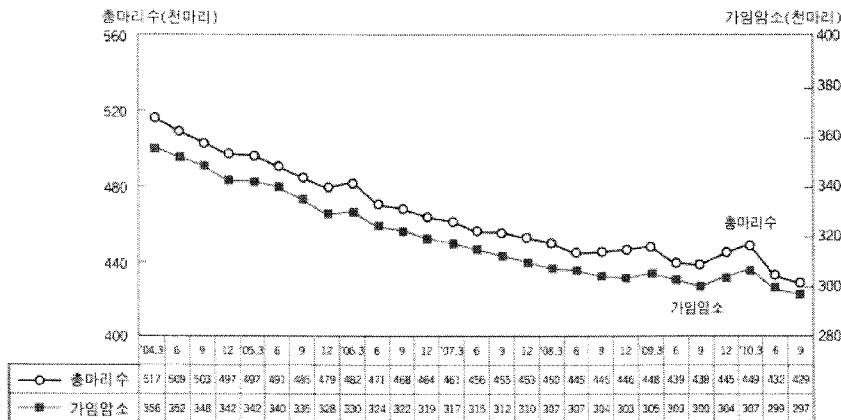
해가 지나갈수록 대한민국 축산의 경영환경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2010년은 그 어느해보다도 축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가 극심했으며,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았던 한해였다고 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연초부터 국제 곡물가 인상에 의한 사료

비 인상은 농장의 생산비 상승으로 연결되었고, 연초 연말의 2차례에 걸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족처럼 키우던 가축을 살처분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을 연중 진행하면서 축산업 관계자들의 땀과 눈물로 얼룩진 한 해였다.

또한,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는 여름철 찜통 더위와 태풍으로 인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생산성저하를 가져왔고, 유럽의 축

【젖소 사육두수 동향】



주: 08년 가축통계 표본개편과 09년 통계조사 방법의 변경으로 9월 조사 결과와 이전 결과 사이에 단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통계

산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축산의 미래를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지난 11월말에 재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아직도 우리는 2010년의 어려움을 끝내지 못한채 2011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낙농산업에 있어서도 올해는 유난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숙기 산업으로서 성장보다는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총 사육두수는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한 428천두 수준으로 예상되며, 낙농 농가수는 6,400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진흥회가 최근 발표한 11월 중 낙농산업주요지표에 따르면 10월중 일평균 생산량은 5,439톤으로 9월 5,529톤에 비해 1.6%가 감소했다.

더욱이 10월까지 누적생산량 역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한 1,747,823톤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원유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낙농가들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올해 초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시작으로 하절기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젖소들의 극심한 고온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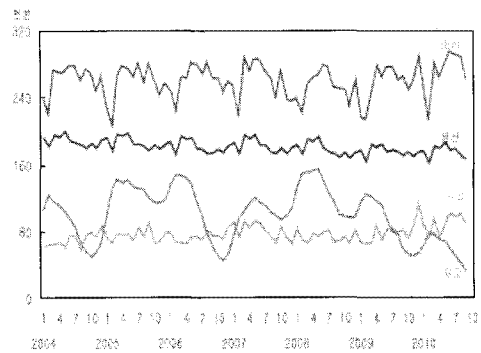
특히 예년의 경우 여름철 고온스트레스를 받은 젖소들이 10월 이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됐지만 올해는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원유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여름 더위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농

가에서는 더위에 특히 약한 고능력우들이 극심한 더위스트레스로 인해 폐사도 발생하였고, 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서는 모기 매개성 질병으로 인한 폐사도 속출하고 있어 원유생산량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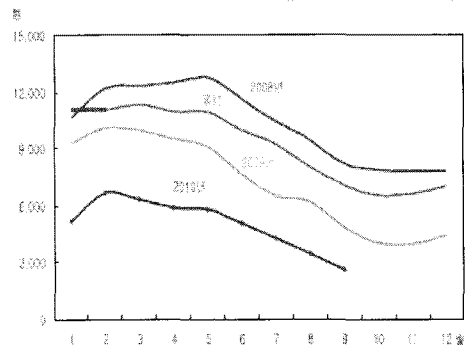
이처럼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원유 생산량 감소세는 더욱 커져 원유 부족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원유 수급 동향



자료: 낙농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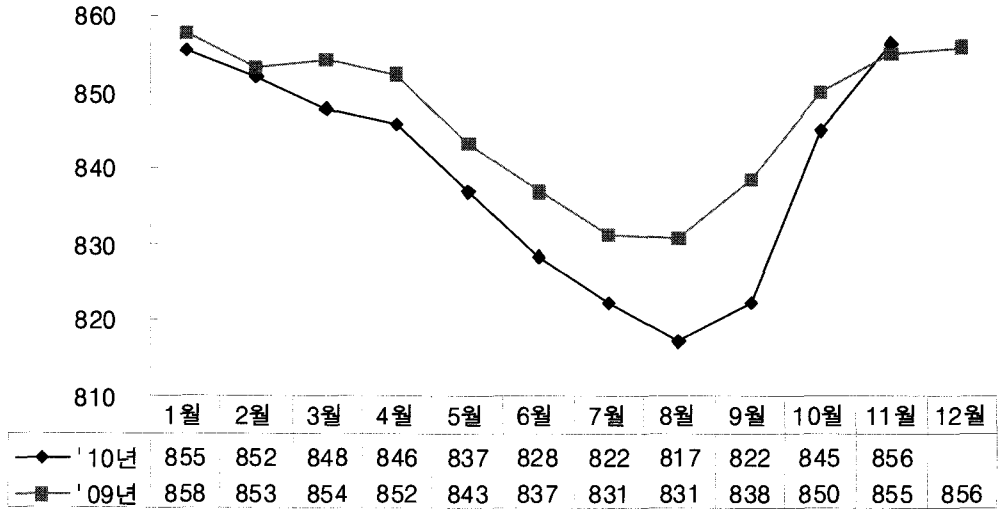
분유 재고 동향



자료: 한국유가공협회

<2010년 수취 유대 단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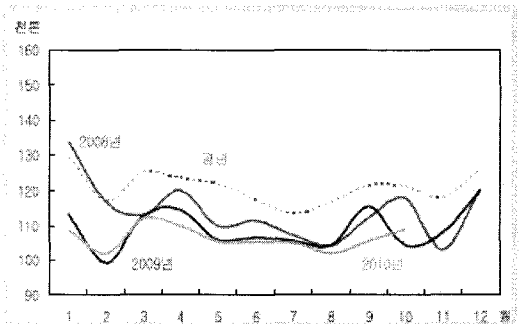
(단위: 원/kg)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한 유질저하가 수취 유대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되었다. 올 한해 유대수취가격을 보면 여름철부터 감소가 확연히 보이고 있으며, 우유소비량 증가에 따른 생산부족현상으로 인한 저능력우 도태지연도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9월까지 낙농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955천톤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원유 생산량 감소폭 1.9% 보다 훨씬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합사료 급여량 조절 및 조사료 급여 증가, 사육두수 감소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이해된다. (10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4% 증가하였으나 이는 곡물가 인상에 의한 배합사료 인상 우려에 의한 가수요로 판단됨)

젖소 배합사료 생산량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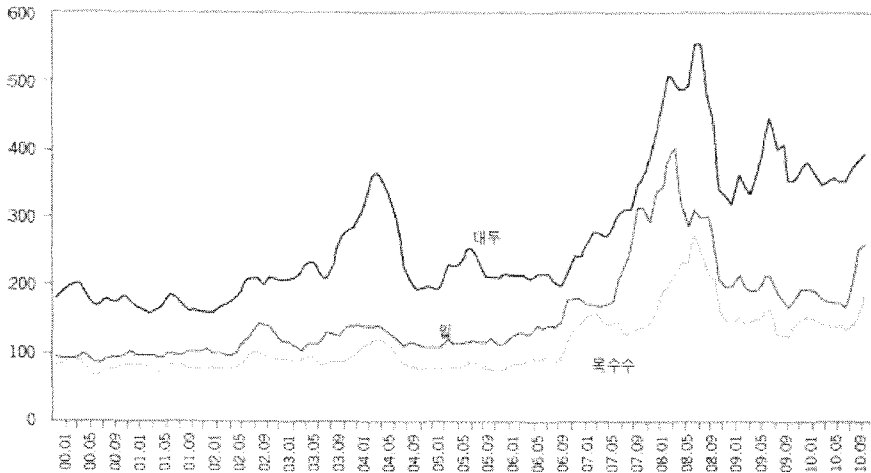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5-09년 중 최저, 최고치를 제외한 평균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또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정식서명됨에 따라 우리 농업, 특히 축산업에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한·EU FTA가 양측 의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발효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

【 최근 10년간 국제곡물 가격 추이 】



자료: 시카고 선물거래소

관이 내놓은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는 발효 후 15년차에 3,0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돼지고기가 1,214억원으로 가장 크고 낙농품(805억원), 쇠고기(526억원), 닭고기(331억원)가 뒤를 잇는다. 낙농업계에서 예상하는 피해액은 훨씬 더 크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낙농분야 피해를 1,028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분유 의 경우 전체 수입량중 EU로부터 수입된 양은 적게는 62.4%에서 많게는 84.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EUFTA가 타결로 인해 현재보다 낮은 관세율로 EU로부터 유제품 수입이 허용될 경우 EU 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절대수입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낙농산업 전망

2011년도 낙농산업을 전망할 때 연초부터 출발은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우선 11월말에 경북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방역을 하고 있지만 수그러지기는 커녕 오히려 낙농목장이 밀집하고 있는 경기도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예전의 경우를 볼 때 보통 2,3월에 발병해서 더워지는 6월전 종식되는 형태였으나 이번은 추위가 시작되는 11월에 발병하여 방역당국을 당혹케하고 있다. 실제 구제역이 과거 발병에 비해 장기간 갈수도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낙농도 구제역이라는 악재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년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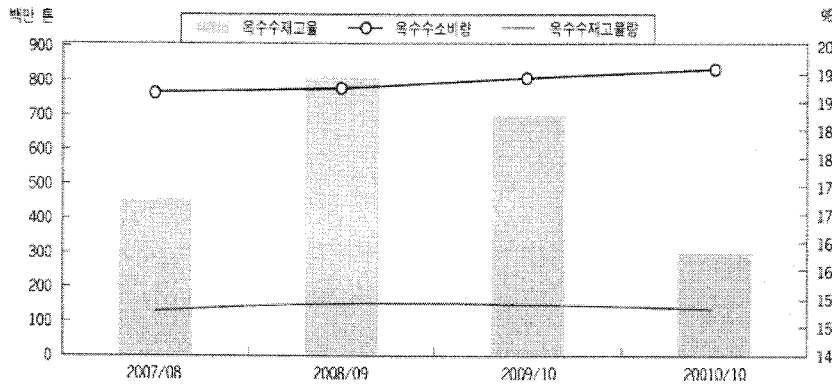
또 하나의 악재는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이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호주

【 국제곡물 가격 동향 】

	'08 평균	'09 평균	'10.6	'10.7	'10.8	'10.9	'10.10	변동폭	
								전년대비	전월대비
밀	294	195	165	207	252	259	246	26.2%	-5.0%
옥수수	208	147	136	148	161	190	220	49.7%	15.8%
대두	453	378	348	371	379	390	441	16.7%	13.1%

주: 2010년 10월은 10월 22일 기준
 자료: 시카고 선물거래소

【 세계 옥수수 재고율 전망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7, October 8, 2010.

의 밀생산 감소, 국제유가상승에 의한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그리고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인한 사상 최고치 곡물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사료의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축산의 고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곡물가격이 지난 2008년을 다시 기억하게끔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시카고 선물시장의 밀, 옥수수, 대두의 가격이 각각 246달러, 220달러, 441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각각 26.2%, 49.7%, 16.7% 상승하였다. 특히 옥수

수가격은 2008년 평균가격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런 결과는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감소로 세계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곡물시장으로 투기세력 진입이 확대된데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수급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두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미국농무부(USDA)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0/11년도 밀, 옥수수, 대두의 기말재고율은 각각 26.3%, 15.8%, 24.3%로 전년대비 3.9%P, 2.4%P, 1.0%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

어 향후 국제곡물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 대두 가격 상승은 국내 사료가격에 영향을 주어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국제 곡물가격이 사료원가에 반영되어야 하나, 구제역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사료가격인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2011년의 사료비에 의한 생산비 상승은 당장 눈앞에 현실로 다가설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낙농업계는 아직도 많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는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준비해오고 있던 새로운 유대정산체제도 혼선없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사료비로 국내 목장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났던 배합

사료 줄여 먹이기와 저급조사료 급여가 2011년도에도 일어날지 모른다.

아울러 여름철 고온스트레스 극복, 태풍에 대한 대비등 농장의 사양관리에 대한 그 어느때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쁜 소식으로는 지난 11월 뉴질랜드에 열린 2010년 IDF총회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에서 우리나라가 39번째로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낙농기술과 수준을 공인받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낙농산업 선진화를 위해 한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비록 내외부 환경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낙농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에 임하기 위하여 낙농산업의 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